

작가약력 및 작품해제 Catalogue Entries

1980s

4 강경규
5 강애란
6 민정기
7 박기호
8 박생광
9 박석원
10 박승규
11 박영하
12 박일용
13 신장식
14 엄태정
15 유영렬
16 이기봉
17 이만수
18 이신자
19 이항성
20 임철순
21 전래식
22 전병현
23 조환
24 최종태
25 홍순주

26 Kang Kyung Kyu
27 Kang Airan
28 Min Joungki
29 Park Kiho
30 Park Saengkwang
31 Park Suk-Won
32 Park Seungkyu
33 Park Youngha
34 Park Il Yong
35 Shin Jangsik
36 Um Taijung
37 Yoo Young-Yul
38 Rhee Kibong
39 Lee Mansoo
40 Lee Shinja
41 Lee Hangsung
42 Lim Chulsoon
43 Chon Naesik
44 Chon Byunghyun
45 Cho Hwan
46 Choi Jongtae
47 Hong Soonjoo

강경규(1954-)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1983년 제6회 중앙미술대전 특선, 1984년 제1회 성화대전 우수상을 수상했고 《도시와 미술전》(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6),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4) 등 국내외 주요 단체전에 참여했다. 1980년대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조형작가회’ 정기전 및 《전환의 회화》(1983), 《서울-빠리 방법전》(1985)에 참여했으며, 1989년 아르코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2008년 경기도 과천에 수다미술관을 개관한 바 있다.

작가는 상상의 공간을 형상화하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화풍으로 주목받았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미술대전 및 중앙미술대전에서 수상하며, 당대 회화에서 전개된 새로운 형상성 모색의 움직임에 함께했다. 초기의 어둡고 기이한 분위기와 색감은 1990년대 들어 점차 물고기, 꽃, 바람 등 자연적인 소재로 전환되었고 파스텔 및 색연필 등을 활용한 작업을 통해 대상의 질감과 색조의 변화를 탐구하며 표현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굴레〉(1982)는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우수상 수상작이다. 이 작품은 좌우 대칭에 가까운 화면 구성과 명암의 대비를 통해 깊이감 있는 공간을 형성하며, 동굴을 연상시키는 공간과 인체 형상이 결합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에 대해 “굴레는 거역할 수 없는 질서가 이루어내는 숙명적인 인간 내면의 갈등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사를 어두운 측면에서 조명하고 인간의 생성과 소멸, 나아가 자연의 본성적 생성과 소멸을 암시한다”고 언급했다.

강애란(1960-)은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일본 타마미술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판화부문 특선(1986), 제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판화부문 대상(1987), 제6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1988)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서울국제판화교류전》(1987), 《예술가가 만든 책》(1999)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개인전 《강애란 : A Room of Her Own》(2016)을 개최했다.

《서울국제판화교류전》출품작인 〈생-II〉(1987)는 제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판화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미술대전에 판화 부문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작가는 1986년부터 10여 년간 ‘보따리’를 소재로 작업하며, 감싸고 가리는 보따리의 형태와 구조를 작품에 활용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생-II〉는 석판화를 통해 보따리의 조형적 특성을 화면에 옮겨, 배경의 추상적 얼룩과 오브제의 사실적 묘사가 대조를 이루는 작품이다. 이후 판화에서 유화, 입체, 설치 등으로 매체를 확장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책’에 주목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설치 작업을 전개했다.

민정기(1949-)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70년대 이후 현실의 폐해나 비리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경향을 지녔던 동인 ‘십이월전’, ‘제3그룹’에 참여했고, 1979년 결성한 민중미술 단체인 ‘현실과 발언’의 창립 동인으로 활동했다. 금호미술관, 국제갤러리, 양평군립미술관에서의 개인전 및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경기도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2006년 제18회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십이월전’, ‘제3그룹’ 등의 동인이 주최한 다수의 정기전에 참여했고, 2004년 대표작가전 《민정기—본 것을 걸어가듯이》와 기획전 《구름》(2004), 《대학로 100번지》(2009)에 초대되었다.

작가는 1980년대 대중적 이미지를 차용해 민중의 삶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회화로 담아냈다. <풍요의 거리>(1981)는 1981년 《십이월전》에서 소개된 작품으로, 소비사회와 대중문화에서 유통되는 통속적 이미지와 팝아트를 연상시키는 시각적 기호들의 콜라주 형식을 통해 당시 미디어로 주입되는 대중문화를 풍자한 작품이다.

박기호(1956-)는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고, 프랑스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1983년 제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 회화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2010년 당진시 순성면의 폐교를 활용해 아미미술관을 설립하여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초기에는 도시 변두리와 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며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후 자연과 폐기물, 장소의 기억과 생태적 환경으로 관심을 확장한 그는 회화와 설치를 아우르며 공간과 환경, 인간의 관계를 탐구해왔다.

〈골목-83〉(1983)은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 수상작이다. 사당동 판자촌에서 얻은 인상을 바탕으로, 높은 밀도와 짙은 갈색조의 화면 구성을 통해 도시 변두리의 좁고 복잡한 공간감을 표현했다. 작가는 당시 군사정권 아래 심화된 빈부 격차와 도시 빈민의 생활 환경에 주목했으며, 판자촌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박생광(1904-1985)은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여 교토시립회화전문학교에서 수학한 뒤 일본 화단에서 활동하다 1944년 귀국했다. 광복 이후 일본 화풍에 대한 시대적 거부감 속에서, 박생광의 작업은 왜색이 짙다는 편견으로 배척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무속화와 민화의 형식을 회화의 언어로 전환한 채색화 작업을 전개하며 독자적인 한국 채색화의 세계를 구축했고, 1981년 백상기념관과 1984년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은 그를 한국채색화의 독보적 반열에 위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채색화의 활발한 전개는 그의 1980년대 전반기 작업이 결정적 동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작가는 1985년 7월 타계하기 전까지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한국 전통의 오방색과 무속, 불교적 소재, 한국의 역사적 인물 등을 적극적으로 화면에 담으며 한국적 조형성과 민족적 정서를 탐구했다. 이 시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수의 대표작을 제작했으며, <이조>(1980)는 이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 작품 중 하나로, 1982년 아르코미술관 소장 이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다. 붉은 윤곽선과 강렬한 색채로 그려진 조선 여인의 뒷모습, 소나무와 토끼 등 전통 설화나 민담의 소재들은 박생광이 추구한 한국적인 미를 조형적으로 담아낸다.

박석원(1942-)은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69년 결성된 ‘AG 그룹(한국아방가르드협회)’의 창립 멤버로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열린 세 차례의 《AG전》에 참여했고, 《파리 비엔날레》(1967), 《상파울루 비엔날레》(1969) 등 주요 국제전에 참가하며 한국 현대 추상조각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아르코 미술관에서는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 《한국현대조각회전》, 《서울현대미술제》 등에 참여했다.

작가는 석재와 철, 나무 등 재료의 물성을 바탕으로 그 구조를 탐구하는 조각 작업을 해왔으며, 1960년대 중후반까지 전개한 앵포르멜 추상 조각은 1970년대 초부터 미니멀한 기하학적 추상조각으로 변모했다. 1974년 첫 개인전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절단으로 귀결되는 간결한 형태와 물체의 변용에 주목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석조 작업에 몰두한 작가는 절단된 크고 작은 돌덩어리들을 하나둘씩 쌓아 올리며 ‘절단’의 행위를 ‘쌓아 올리기’(적(積))의 구조로 이어갔다. 이후 1990년대 ‘쌓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의식을 내재시킨 〈적의(積意)〉 연작으로 발전시켰다. 〈적(積)-8209〉(1982)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적(積) 연작’의 일환으로, 거의 동일한 단위의 돌들이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부분과 전체, 절단과 축적, 해체와 구성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박승규(1951-2007)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룹 농’, ‘오리진회화협회’, ‘홍익판화가회’ 등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아르코미술관에서 여러 차례 열린 《그룹 농 전》, 《오리진회화협회전》 등에 참여했고, 개인전 《박승규전》(1990)을 개최했다. 《'92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2) 등 단체전에 초대되었으며, 제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1987),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선정 최우수예술인상(1995), 제11회 한국 미술작가상(2001) 등을 수상했다.

작가는 1970년대 한국 화단을 주도했던 모더니즘 추상 경향에서 한걸음 나아가, 1980년대 중반 이후 30대의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된 해체적이고 표현적인 새로운 추상 경향에 동참했다. 이 시기 그의 대표 연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확산 이미지’는 프로타주 기법을 활용한 전사 이미지, 콜라주, 자유로운 운필 등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확산공간>(1987)은 제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버려진 물건과 색채의 흔적을 혼합하여 그의 조형적 탐구의 초기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버려진 녹슨 철판, 종이, 헌 천조각 등을 캔버스에 붙인 뒤 물감을 뿌리고, 또다시 붙이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화면에는 여백과 함께 불규칙하게 흩어진 물감 덩어리와 파편화된 형상이 배치되어 있다.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내면의 세계를 평면에 확산시킨 것으로, 어지럽게 뿌려진 물감 덩어리에서 넓은 공간과 자유로운 기분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영하(1954-)는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대부터 ‘오리진회화협회’, ‘신조형회’ 등에서 활동하며 신추상주의 회화로 주목받았고, 1983년 첫 개인전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관훈갤러리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서울현대미술제》, 《오리진회화협회전》, 《B35-’88초대전》 등 정례전과 동인전을 비롯하여, 당대 신세대의 새로운 경향을 주목한 《인간, 그 얼굴과 역사-현대 미술의 동향·30대 작가전》에 참여했다. 1986년과 1987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연이어 특선을 수상한 뒤, 1988년 제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1990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가 선정한 제1회 최우수 예술가로 선정되었다.

박영하는 부친인 시인 박두진(1916-1998)의 영향으로 미래와 가능성을 상징하는 표현인 ‘내일의 너’를 작품의 제목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작가는 자연을 재현하는 대신 내면에서 비롯되는 색과 형의 흐름에 집중하며, 1970년대 이후 한국 추상회화의 흐름에서 보다 자유분방한 표현을 추구했다. 제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 수상작인 〈내일의 너〉(1988)는 삶과 존재, 자연에 대한 작가의 성찰이 추상적 화면으로 드러나는 작가의 초기 작업 세계를 보여준다. 작품은 특정한 형상이나 구도를 앞세우기보다, 화면 안에 색과 붓질이 만들어내는 유동적인 공간을 통해 회화의 근원성을 탐구한다.

박일용(1960-)은 경북에서 태어나 계명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1984년 제3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아르코미술관의 《1982-1986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1987), 다수의 화랑미술제 및 2019년 선화랑 개인전을 비롯하여, 대구포럼 IV 《대구미술 1980-1989: 형상의 소환》(대구미술관, 대구, 2025) 등에 참여했고, 주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작업 초기에는 물질문명의 속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삶을 다룬 사회고발적 성격의 극사실주의 화풍을 전개하다가, 점차 순수 회화적 표현에 집중하며 자연 이미지로 그 관심사가 옮겨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인물, 실내 풍경, 정물 등을 소재로 활용했고, 자연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풍경화를 전개하고 있다.

제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 수상작인 〈상황 846〉(1984)은 그의 초기 작품으로, 폐차장에 널려 있는 자동차의 잔해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작가는 폐차된 자동차의 파편을 통해 물질문명의 병폐와 소외된 인간의 삶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화면에 가득 들어찬 자동차 잔해는 산업화된 도시 환경의 단면을 보여주고, 사물의 정밀한 묘사를 통해 현실의 무게를 환기한다.

신장식(1959-)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서양화전공 및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8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판화 부문 대상을, 1993년 제5회 《와카야마 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2등상을 수상했다. ‘앙가쥬망’과 ‘레알리떼 서울’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앙가쥬망 전》과 《한국현대판화가협회전》, 《서울국제판화교류전》 등 협회전 및 동인전에 참여했다. 1993년에는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도시, 그 삶의 공간》에 참여했으며,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와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신장식은 1980년대 이후 판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판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 조형 언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제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판화부문 대상 수상작인 〈아리랑—기쁜날 V〉(1989)는 다색목판화로, 1988년부터 전개된 〈아리랑〉 연작의 하나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막식 미술감독으로 참여했던 작가는 올림픽 폐회식 마지막 장면에서 출연자와 관객이 청사초롱을 흔들며 서로 인사를 나누던 모습을 작품의 직접적인 소재로 사용했다. 작품 속 청사초롱은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초롱을 현대적으로 다시 디자인한 것이다. 여러 개의 판이 아니라 하나의 목판을 계속 깎아나가면서 여러 색을 찍어내는 소멸법을 활용하여 목판화에 새롭게 적용한 작품으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희망과 의지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다.

엄태정(1938-)은 서울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세인트마틴 스쿨 오브 아트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67년 제1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절규〉(1967)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세계는 세계화한다》(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등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MMCA 서울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5) 등 주요 기획전에 초대되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추상작가들이 모여 결성한 서울'70의 《제2회 서울'70전》(1975)을 시작으로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과 한국현대조각의 흐름을 주도한 '서울조각회'의 창립 동인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서울조각회》 동인전에 참여했다.

금속조각가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는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조각에 영향을 받아 사물의 본질과 재료의 물성을 탐구하며 추상 조각의 영역을 모색했다. 1960-70년대에는 주역과 음양 등의 사유 체계를 바탕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조형 질서를 탐구했으며, 1980년대에는 천지인 등의 주제와 민속 신앙, 전통적 정서에 관심을 기울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시공간과 사물의 물성을 조형 언어로 풀어내며 작업의 영역을 확장했다. 1970년대에는 주로 동판을 연결하고 표면에 흠집을 내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며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했다. 〈면(面)〉(1981)은 이러한 작업 방식이 1980년대 초까지 이어지며 전개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단순화된 형태와 면의 중첩 및 덩어리감이 조화를 이루며, 금속이라는 재료의 물성과 조형적 본질을 탐색한 작가의 작업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유영렬(1937-)은 충남 공주 정안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1960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의 제도와 기성화단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홍익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출신의 젊은 작가들과 함께 '60년미술가협회' 결성에 참여했다. 이후, '현대미술가협회'와 '60년 미술가협회'가 연합해 결성한 '악뛰엘'의 중심 멤버로 활동했다. 작품 초기에는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반복적인 점과 타원형의 형상을 화면에 집적하는 추상 회화로 나아갔다. 이후 동일한 형상의 반복과 중첩을 통해 빛과 공간의 깊이, 생명감과 명상성을 구현하며 끊임없는 자기 수련과 조형적 탐구를 이어왔다. 2022년에는 고향인 공주 정안면에 금동산미술관을 설립하여 지역 사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개인전 《유영렬 전》(1988)과 《유영렬 회화전》(1997)을 개최했다. 《유영렬 전》에서 선보였던 〈적멸(寂滅)〉(1988)은 물속을 유영하는 작은 물고기 떼, 혹은 흐드러지는 꽃잎을 연상시키는 형상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작품의 제목인 '적멸'은 불교에서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작품은 붓 대신 엄지손가락을 문질러 제작한 것으로, 반복적이고 수행적인 형식적 실험을 엿볼 수 있다.

이기봉(1957-)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Where You Stand》(국제갤러리, 서울, 2022), 《There Is No Place》(티나킴갤러리, 뉴욕, 2024) 등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창원조각비엔날레 등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작품의 소재와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회화의 이미지 회복을 추구했던 ‘레알리떼 서울’ 및 ‘3월의 서울’, ‘82 현대회화’ 동인으로 활동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다수의 동인전에 참여했으며, 개인전 《이기봉: 흐린 방》(2012)을 개최했다.

작가는 초기 회화에서 사물과 이를 인식하는 주체의 관계에 주목하여 일상에서 마주하는 ‘날것’의 물질성과 존재를 탐구했으며, 사물과 사물, 인간과 자연, 물질과 비물질의 관계성을 회화뿐 아니라 설치와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각화했다. 특히 빛, 물, 안개 등 비물질적 요소를 활용해 기억과 시간, 존재와 부재, 현실과 지각이 교차하는 공간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 환경의 유기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왔다.

〈날 것—흰수건이 있는 자리〉(1986)는 제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이 작품을 통해 화단에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물, 꽃잎, 고기, 흙, 돌 등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대상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정육점에 놓인 날고기와 흰 수건의 대비에서 받은 생경한 인상을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작가는 ‘날것’의 상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물감을 뿌리고 흘리거나 긁어내는 방식을 활용했다. 또한 금속의 냄새와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선흥색과 어두운 회색을 바탕으로 은색 락커를 사용했다. 이 작품은 사물의 역동적 생명력과 생경한 느낌을 통해 마음에 투영되는 사물의 본질을 보고자 했던 그의 작업 철학이 드러난다.

이만수(1961-)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관훈갤러리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해왔으며, 개인전 《산조-새벽》(통인화랑, 서울, 2026)을 개최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80년대의 형상미술전》(금호미술관, 서울, 1989), 《젊은모색 '90: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0), 《서울현대한국화전》(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0, 1991) 등이 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서울현대미술제》(1988), 제3회 개인전 《이만수전》(1991) 등에 참여했고 1980-90년대 한국화의 새로운 움직임을 표방하는 '현대수묵회' 회원으로 《'90 한국화 상황 모색전》(1990) 및 《'92 한국미술단체초대전》(1992) 등에 참여했다.

작가는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소외되는 인간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담긴 수묵 채색화의 표현법을 실험적으로 확장해왔다. 현대 시각문화 속에서 한국화의 정체성을 모색하며 먹과 채색, 토분 등을 함께 활용한 화면을 구축하고, 연꽃과 인물 등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개인의 성찰과 삶의 가치, 주체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탐구했다. 작가는 <봄봄> 연작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1983) 특선과 동아미술제(1982)에 입선하였으며, 같은 연작으로 1989년 제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작 <봄봄>(1989)에서 작가는 '봄봄'을 계절이 아닌 '본다'는 의미를 담은 제목으로 제시하며, 화면을 분할해 이미지를 중첩시키고 연꽃과 파랑새를 통해 이상향과 인간 내면의 시선, 깨달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신자(1930-)는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직물을 전공했다.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1)을 비롯해 회고전 《실로 그리다》(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3) 등 주요 전시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전국공예가초대전》, 《한울전》 등에 꾸준히 작품을 선보였고 특히 1980년대 《한국섬유미술비엔날레》의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작품을 출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 섬유 미술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1950년대부터 한국 전통 자수와 염색의 표현을 현대적으로 확장하며 섬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고 1972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태피스트리를 선보이며 한국 현대 섬유예술의 지평을 확장했다. 실과 직물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형성과 회화적 화면을 구축했으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운미회’와 ‘한울회’에서 활동하며, ‘한울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작업-80〉(1980)은 작가가 1970년대 이후 태피스트리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그 조형 가능성을 확장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흑백의 절제된 색채와 기하학적 구성, 매듭과 늘어진 실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섬유 자체의 구조와 조형성을 강조했다. 종양의 원형과 역삼각형 구성을 통해 화면의 균형감을 담아냈다. 직조 기법과 섬유 재료를 독립적인 조형 언어로 제시하며, 1970-80년대 한국 섬유예술이 공예를 넘어 현대 조형예술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항성(1919-1997)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한국 현대판화의 정착과 발전을 이끈 판화가이자 화가, 미술출판인이다. 광복 이후 문화교육출판사와 신미술사를 설립하고 미술 교과서와 전문 미술서, 미술 잡지 『신미술』을 발간하며 한국 미술문화의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6.25전쟁 시기인 1951년 국내 최초 다색 석판화 개인전을 개최했고, 1958년 유강렬, 정규, 최영림 등과 함께 ‘한국판화협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맡아 《현대판화 10년전》(창일다방, 신성다방, 서울, 1969)을 기획하는 등 한국 현대판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2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지와 먹, 유화 물감, 동양화 물감, 염색 물감 등을 결합한 독창적인 추상회화를 전개했고 파리를 비롯해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뉴욕, 도쿄 등에서 초대 개인전을 개최했다. 초기에는 석판화를 중심으로 동양적 정신성을 탐구했으며, 프랑스 체류 이후에는 한지를 활용한 추상회화로 작업을 확장하였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미술회관 개관기념 판화초대전》(1974), 《한국미술: 판화대전》(1981) 등에 참여했다.

〈세느강에서〉 연작은 1980-1981년 프랑스 체류 중 전개한 작품으로, 작가가 1970년대에 확립한 한지 콜라주와 혼합재료 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이 연작은 프랑스 시인 카티아 그라노프(Katia Granoff, 1895-1989)의 시를 모티프로 프랑스어와 철새, 꽃 등의 형상이 추상적 색면과 겹쳐지며 동양적 정신성과 서구 추상회화의 조형 감각을 결합한 작품이다.

임철순(1954-)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미술 대표작가 100인의 오늘전》(세종문화회관, 서울, 2009), 《임철순》(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9) 등 다수의 개인전과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1980년 제5회 창작미협공모전 대상과 1988년 제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1989년 제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기존 화단의 세력권에서 이탈하여 형상성과 이미지 회복을 모색한 ‘창작미술협회’, ‘현·상’, ‘레알리떼 서울’, ‘82 현대회화’ 등 다수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이들의 동인전에 참여했고, 첫 개인전 《제1회 임철순전》(1987)과 《서울현대미술제》(1988),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도시, 그 삶의 공간》(1993) 등 주요 전시에 참여했다.

작가는 현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일상적 이미지들을 상징과 추상적 이미지로 전환하고, 사실적 재현과 추상적 이미지의 이분법을 넘어서 독창적 화면 구성으로 1980년대 새로운 추상 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현대인을 위한 시그널〉(1989)은 제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긴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안과 소외를 거대한 도시 구조물과 대비시키며, 회백색의 벽과 낙서, 기호, 숫자, 얼룩 등의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마대 위에 실크스크린, 젯소,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결합하여 분할된 색면과 색채의 번짐을 활용한 실험적인 화면은 당시 회화의 표현 영역을 확장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전래식(1942-)은 서라벌예술대학 동양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4년 롯데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도화전》을 개최한 이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금강미술대전》(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04) 등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1982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 1983년 제5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협회상과 작품상을 수상했다. ‘창림회’와 ‘시공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이들의 동인전 등에 참여했으며, 1987년 개인전 《전래식 전》을 개최했다. 또한 《국제현대수묵화연맹전》(1983), 《아시아현대채묵화전》(1986) 등에 참여했다.

작가는 구상과 비구상이 어우러진 독창적 산수를 개척하며 구체적인 자연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변형하여 화면의 조형적 요소로 구성했다. 1970년대에는 흙을 주제로 한 〈토흔〉 연작을 통해 인간과 자연, 역사의 근원을 탐구했으며 이후 힘찬 필선과 생략, 함축을 결합한 조형산수로 작품세계를 확장했다.

〈여정〉(1982)은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흙과 옛 성의 돌담을 모티프로 옛 선인의 흔적을 형상화하고 삶과 시간의 흔적을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수상 인터뷰에서 “먹과 담채를 활용해 수묵의 조화와 음양의 변화, 여백의 미를 구현했으며, 예리한 선과 각, 함축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 질서를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전병현(1957-)은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 및 이듬해 우수상을 수상했고, 이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국립고등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전병현 전》(1984)을 개최한 이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환기미술관, 뮤지엄 산 등 주요 기관의 전시에 참여했다.

초기에는 사실적 재현을 바탕으로 인간이 남긴 흔적과 삶의 현실을 탐구하는 회화를 선보였으며 파리 유학 이후에는 닥나무를 직접 재배해 만든 한지와 황토, 전통 안료를 활용해 부조적 화면을 구축하며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했다. 〈흔적-5〉(1982)는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부서진 배와 잔해가 있는 바닷가를 통해 인간 존재의 고독과 삶의 흔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인천 송도의 실제 풍경과 작가의 기억을 결합해 구성했으며, 청갈색을 중심으로 한 절제된 화면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현실에 밀착한 인간의 삶과 정서를 담아냈다”고 언급했다.

조환(1958-)은 부산에서 태어나 세종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아트 스튜던츠 리그 오브 뉴욕과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조소를 수학했다. 1985년 제2회 ‘후소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제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1986)을 비롯해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1986)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제2회 후소회 공모전》(1985), 《한국화 12인전》(1986), 《1982-1986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1987), 《33인전》(1987), 《인간, 그 얼굴과 역사-현대 미술의 동향·30대 작가전》(1992) 등에 참여했다.

역사와 사회, 인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근간을 이루는 그의 작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수묵 인물과 군중 장면을 통해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작업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이후 철판을 활용한 부조 형식의 철판산수 연작을 통해 한국화의 표현 영역을 확장해 왔다. <도시한담>(1986)은 제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철판 연작 이전에 제작된 작가의 초기 수묵 인물화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전철역에 모여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언급했으며, 이후에도 도시의 일상과 사람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삼았다.

최종태(1932-)는 충청남도 대덕에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했다. 《최종태》(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5), 《Face》(가나아트센터, 서울, 2026) 등 국내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1960년 제9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수상으로 주목받았고, 1998년 국민훈장 동백장, 2006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2008년 은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 등 주요 전시에 참여했으며, ‘목우회’, ‘현대공간회’, ‘서울조각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목우회 회원전》(1977), 《현대공간회 조각전》(1979), 《서울조각회 창립전》(1981) 등 관련 동인 전시에 꾸준히 참여했다.

스승인 김종영의 영향을 바탕으로 서구 현대조각과 한국 불교조각을 탐구하며 인체를 단순화한 조형 언어를 구축했으며, 여성과 얼굴, 기도하는 인물, 성모상 등을 일관되게 다루었다. 인물의 형태를 간결하고 단순화하여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독창적 형식을 구축해오면서 한국 현대 조각의 거장으로 손꼽힌다.

작가는 ‘인간의 얼굴’을 모티프로 그것의 조형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의 정신적 미와 인간에 대한 연민을 담아냈으며, 〈얼굴〉(1982)은 이 연작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1980년대의 두상 시리즈는 얼굴의 두께를 줄인 납작한 면과 가는 목, 넓은 얼굴로, 도끼를 연상시키는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1970년대의 목조각 중심에서 1980년대의 청동 작업으로 변화하던 시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홍순주(1954-)는 서울에서 태어나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한국현대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1981),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2-1998) 등 주요 전시에 참여했으며,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공부장관상 특선(1979)과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1983)을 수상했다.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이원회’와 채색화 중심의 한국화가 모임인 ‘후사회’ 동인으로 활동했고,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이원전》 및 《33인전》(1987)과 개인전 《홍순주 전》(1992)에 참여했다.

1980년대에는 인물, 야경, 조각보 등을 소재로 구상 작업을 선보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먹과 호분을 활용한 적필을 바탕으로 추상 작업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색면과 셰이프트 캔버스(shaped canvas) 등을 활용하며 화면의 구조적 실험을 지속했다. 〈어느 오후〉(1983)는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는 노인의 모습을 소재로 삼아 담담하면서도 삶의 의지를 간직한 표정을 표현했다. 작가는 작품에 대해 “현대사회의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작품에는 담담한 생의 의욕이 담긴 노인들의 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Kang Kyung Kyu (b. 1954) was born in Hamyang, Gyeongsangnam-do,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Chung-Ang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won the Excellence Prize at the first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2, the Special Prize at the sixth JoongAng Fine Arts Prize [JoongAng Misul Daejeon] in 1983, and the Excellence Prize at the first Seonghwa Art Exhibition [Seonghwa Daejeon] in 1984, and participated in major group exhibitions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City and Art* (Seoul Museum of Art, Seoul, 1996) and the *Seoul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94). Through the 1980s he participated in the annual exhibitions of the Plastic Artists Group at ARKO Art Center, as well as the *2nd Exhibition of Conversive Art* (1983) and the *'85 Exhibition of Way, Seoul, Paris* (1985), and held his first solo exhibition there in 1989. In 2008 he opened the Suda Museum of Art in Gwacheon, Gyeonggi-do.

Kang has drawn attention for his rendering of imagined spaces in minute, hyperrealistic detail, to surreal effect. His early accolades placed him within the period's search for a new figuration in painting. From the 1990s the dark, uncanny mood of his early work gave way to natural motifs such as fish, flowers and wind. By working in pastel and colored pencil he broadened his expressive range through shifts of texture and tone.

A Bridle (1982) won the Excellence Prize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at the first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Nearly symmetrical in composition and built on stark contrasts of light and dark, the painting opens onto a cavernous space fused with the human form. "The bridle expresses the fated inner conflict wrought by an order that cannot be defied," the artist remarked. "It views human life from its darker side, hinting at the birth and extinction of humankind, and of nature itself."

Kang Airan (b. 1960) was born in Seoul, studied painting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earned her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from the graduate school of Tama Art University, Tokyo, Japan. She won the Special Prize in the printmaking section of the fif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6, the Grand Prize in the same section at the sixth exhibition in 1987, and the Grand Prize at the sixth Seoul International Print Biennial in 1988. At ARKO Art Center she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of Prints Seoul* (1987) and the *Artist Book* (1999). She held the solo exhibition *Kang Airan: A Room of Her Own* in 2016.

Life-II (1987), shown at the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of Prints Seoul*, won the Grand Prize in the printmaking section of the six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the first Grand Prize awarded since the section's creation. From 1986 Kang spent over a decade working with bottari (fabric bundles), incorporating their wrapped, concealed forms and structures into her work. In *Life-II*, lithography carries the formal qualities of bottari onto the picture plane, setting the abstract stains of the background against the realistic rendering of the object. She has since expanded from printmaking into oil painting, three-dimensional work, and installation. Since 1998, she has turned her attention to the concept of the book, developing installations that incorporate digital technology.

Min Joungki (b. 1949) was born in Anseong, Gyeonggi-do,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1970s he took part in the December Group and the Jae Sam Group [The Third Group], collectives that sought to challenge and critique the social ills of the time, and was a founding member of Reality and Utterance, the Minjung art collective formed in 1979.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the Kumho Museum of Art, Kukje Gallery, and the Yangpyeong Museum of Art,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13th Gwangju Biennale and shows at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d won the eighteenth Lee Jungseop Art Prize [Lee Jungseop Misulsang] in 2006.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numerous regular exhibitions of the December Group and the Jae Sam Group, and was invited to the survey *Min Joung-ki—WalkScape* (2004) and the exhibitions *Rolling Space* (2004) and *100 Daehangro* (2009).

In the 1980s Min borrowed from popular imagery to paint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e realities of Korean society. *Rich Street* (1981) was presented at the *December Exhibition* in 1981. It satirizes how 1980s mass culture was fed through the media of its day, collaging the commonplace images of consumer society with visual signs recalling Pop art.

Park Kiho (b. 1956) was born in Dangjin, Chungcheongnam-do,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tudio Ar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nd continued his studies at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in Paris. Since winning the Grand Prize at the second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3 he has sustained his painting practice, and in 2010 he converted a closed school in Sunseong-myeon, Dangjin, into the AMI Art Museum, which he continues to direct. In 2016 he received the Republic of Korea Culture and Arts Award for his contribution to regional arts and culture.

His early work examined the city's margins and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ith a realist's eye, reflecting his concerns with social reality. In extending his attention to nature and waste, and to the memories and ecologies of places, he has moved across painting and installation to probe the relations of space, environment, and the human.

Alley-83 (1983) won the Grand Prize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of the second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rawing on impressions of the shantytown of Sadang-dong, its dense, deep-brown composition conveys the narrow, tangled space of the city's edge. Attentive to the 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to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urban poor under the military regime of the day, Park sought to record, truthfully, the lives and sorrows of those who made the shantytown their home.

Park Saengkwang (1904–1985) was born in Jinju, Gyeongsangnam-do, studied at the Kyoto City Art School, and worked in the Japanese art world before returning to Korea in 1944. After liberation, amid the era's rejection of Japanese colonialism, his work was rejected for its perceived association with Japanese-style painting. From the late 1970s, however, he turned the idioms of shamanic and folk painting into a painterly language of his own, building a singular style of Korean color painting. His solo exhibitions at the Baeksang Memorial Hall in 1981 and at ARKO Art Center in 1984 established him as a leading figure in Korean color painting, and the flourishing of color painting in Korean art from the mid-1980s is widely regarded as having been decisively shaped by his work of the early 1980s.

In the five years before his death in July 1985, Park filled his canvases with the five traditional Korean colors, using shamanic and Buddhist motifs and figures from Korean history to search out a Korean sense of form and national feeling. In this brief intense span he produced many of his defining works. *Yi Dynasty* (1980) is one of the major works marking the beginning of this period. Acquired by ARKO Art Center in 1982, it is shown here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acquisition. The back of a Joseon woman has been drawn in thick outlines and intense color, and motifs from traditional tales and folklore such as the pine and the rabbit reveal the distinctly Korean formal language Park pursued.

Park Suk-Won (b. 1942) was born in Jinhae, Gyeongsangnam-do, and studied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 founding member of the AG Group (Korean Avant-Garde Association), formed in 1969, he took part in the three AG exhibitions held from 1970 to 1972, and in major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the Paris Biennale (1967) and the Sao Paulo Art Biennial (1969), establishing himself as a leading Korean abstract sculptor.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and in the regular exhibitions of the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Society and the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Park has explored the structural possibilities inherent to stone, iron, and wood. The informel abstraction of his sculpture through the mid-to-late 1960s gave way in the early 1970s to a minimal, geometric abstraction. From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74 into the early 1980s he pursued spare forms developed through cutt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material. From the late 1970s he became devoted to stone as a medium, and he began his series piling cut blocks one upon another, turning the act of cutting into a structure of accumulation. By the 1990s this advanced into the *Accumulation* series, which tied the piled structure to the notion of human consciousness. *Mutation-Relation 8209* (1982), part of the *Mutation-Relation* series first begun in the late 1970s, joins nearly identical units of stone in repetition, reveal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t and whole, cutting and accumulation, dismantling and construction.

Park Seungkyu (1951–2007) studied Wester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ctive in Group Non, the Origin Painting Association, and Hongik Printmakers Group, he participated in their recurrent exhibitions at ARKO Art Center, including the *Group Non Exhibition* and the *Exhibition of the Origin Painting Association*, and held the solo exhibition *Park Seungkyu Solo Exhibition* there in 1990. Invited to group shows including *Contemporary Art Festival '92*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92), 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six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7, the Artist Prize by the Korean Art Critics Association in 1995, and the eleventh Korean Art Artist Award [Hanguk Misul Jakgasang] in 2001.

Breaking from the modernist abstraction that had dominated Korean painting in the 1970s, Park joined the deconstructive, expressive new abstraction pursued by artists in their thirties from the mid-1980s. His signature series of the period, the *Diffusion Image* series, drew on frottage transfers, collage, and free brushwork. *Diffusion* (1987),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of the six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mixes discarded objects with traces of color, showing the early phase of his new interest in formal inquiry. Park glued rusted sheet metal, paper, and scraps of old cloth to the canvas, scattered paint over them, and then repeated the process of pasting and scattering paint; across the surface, irregular clumps of paint and fragmented forms sit among passages of emptiness. “It spreads my inner world across the plane,” he said on receiving the prize. “In the tangled clumps of scattered paint I feel a wide space and a sense of freedom.”

Park Youngha (b. 1954) earn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ctive from the 1980s in the Origin Painting Association and the Neo-formative Art Group, he drew attention for his neo-abstract painting; after a first solo exhibition in 1983 he participated in group shows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wanhoon Gallery, and elsewhere. At ARKO Art Center he took part in the recurring and group exhibitions of the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the *Exhibition of the Origin Painting Association*, and the *B35-'88 Invitational Exhibition*, as well as *Man, His Face and History—Recent Movement of the Korean Young Artists in Their Thirties*, which surveyed the new currents within the rising generation. After consecutive Special Prizes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6 and 1987, he won the Grand Prize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at the seventh in 1988, and in 1990 received the inaugural Artist Prize given by the Korean Art Critics Association.

Under the influence of his father, the poet Park Dujin (1916–1998), Park has long titled his works *Man of Tomorrow*, a phrase that evokes the future and its possibilities. Rather than depicting nature, he attends to the flow of color and form arising from within, realizing a freer surface than had been prevalent within the current of Korean abstract painting since the 1970s. *Man of Tomorrow* (1988), the Grand Prize winner at the sev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shows the early phase of his work, where Park's reflection on life, existence, and nature surfaces as abstraction. Without foregrounding any particular figure or compositional structure, the painting probes the primal ground of the medium through the fluid space opened by the color and brushwork within the frame.

Park Il Yong (b. 1960) was born in Gyeongsangbuk-do,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Keimyung University, and earned a master's degree in art education from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third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4 and participated in the *Invitational Exhibition of Award-Winning Artists from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1982-1986* (ARKO Art Center, 1987). Working chiefly in the Yeongnam region, Park has shown at numerous gallery art fairs, staged a 2019 solo exhibition at Sun Gallery, and contributed to *Daegu Forum IV Daegu Art 1980-1989: To Figuration* (Daegu Art Museum, Daegu, 2025).

In his early years Park pursued a socially engaged form of hyperrealism, exposing the character of materialistic civilization and the lives caught within it. His attention then shifted toward painterly expression for its own sake and the imagery of nature. From the late 1990s he took up figures, interiors, and still lifes, and has since developed landscapes that emphasize the vitality of the natural world.

Situation 846 (1984),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at the third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is an early work depicting in hyperrealist detail the wreckage of cars strewn across a scrapyard. Through these fragments of wrecked automobiles Park sought to lay bare the ills of material civilization and the estranged lives of human beings within; the debris crowding the canvas presents a cross-section of the industrialized urban environment, and the precision of its rendering evokes the weight of reality.

Shin Jangsik (b. 1959) studied Wester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ainting at its graduate school. He won the Grand Prize in the printmaking section of the 8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9 and second prize at the 5th Biennial Exhibition of Prints in Wakayama in 1993. Active in the artist groups Engagement and Réalité Seoul, he participated at ARKO Art Center in the Engagement exhibitions, the exhibitions of Korean Contemporary Printmakers Association, and the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of Prints Seoul*, among other association and group shows. In 1993 Shin took part in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City, the Space of Life*. He has served as professor at the College of Art, Kookmin University, and as chair of the Korean Contemporary Printmakers Association.

Active as a printmaker since the 1980s, Shin has pursued a contemporary reading of Korea's traditional formal language in painting and print. *Arirang—Happy day V* (1989),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printmaking section of the 8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is a color woodcut drawn from the closing ceremony of the 1988 Seoul Olympics. Shin, who served as art director for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took as his direct subject the final scene, in which performers and spectators waved cheongsachorong lanterns in greeting to one another. The lanterns in the work are a contemporary redesign based on one in the collection of the museum at Dankook University. Rather than using multiple blocks, he cut a single woodblock progressively to print each color—a reduction method newly applied to the woodcut—seeking to convey the hope and resolve of crossing the hill of Arirang.

Um Taijung (b. 1938) studied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nd at the graduate school of Saint Martin's School of Art, London, UK. He drew notice in 1967 when *Scream* (1967) received the Prime Minister's Award at the 16th National Art Exhibition (Gukjeon).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including *Um Tai-Jung: World Worlds* (Arario Gallery, Seoul, 2025) and been invited to major exhibitions such as *MMCA Collection: Korean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25).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within various shows from the *2nd Seoul'70 Exhibition* (1975), mounted by the abstract artists of varied genres gathered as Seoul'70, through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As a founding member of the Seoul Sculptors Society, which was a leading force in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he took part in many of the group's exhibitions.

Best known as a metal sculptor, Um was influenced by the sculpture of Constantin Brâncuși and explored the essence of things and the materiality of his chosen materials, while seeking new possibilities in abstract sculpture. Throughout the 1960s and 1970s, he developed a conceptual and abstract formal system drawing on the philosophical ideas of the I Ching and yin and yang. In the 1980s, he turned to themes such as Cheonjiin (heaven, earth, and human), reflecting folk beliefs and traditional sensibilities, and from the 1990s onward, he translated space, time, and the materiality of things into a formal language. In the 1970s, he developed a formal vocabulary based primarily on joined copper plates, creating varied forms and scoring their surfaces. *Face* (1981) reflects his exploration of geometric form, which he continued into the early 1980s. The interplay of simple forms, overlapping planes, and a sense of mass reveals his pursuit of the materiality of metal and formal essence.

Yoo Young-Yul (b. 1937) was born in Jeongan, Gongju, Chungcheongnam-do, and studied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In 1960, taking a critical stance toward the system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Gukjeon] and the mainstream art scene, he helped establish the 1960 Fine Artists Association with young artists from Hongik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later became a key member of Actuel, formed through the union of the Hyundai Fine Artists Association and the 1960 Fine Artists Association. His early work was influenced by Abstract Expressionism, after which he developed an abstract practice based on the accumulation of repeated dots and oval forms across the canvas. Through the repetition and layering of a single form, he continued to explore the depth of light and space, vitality, and a meditative quality, pursuing sustained formal inquiry and self-discipline. In 2022, he established the Geumdongsan Museum in Jeongan, Gongju, his hometown, continuing his engagement with the local community.

At ARKO Art Center, he held the solo exhibitions *Yoo Young-Yul* (1988) and *Yoo Young-Yul: Paintings* (1997). *Break Dawn* (1988), presented in the 1988 exhibition, fills the canvas with forms reminiscent of a school of fish swimming underwater or scattered flower petals. The Korean title of *Break Dawn*, 'Jeokmyeol,' refers in Buddhism to a state of stillness in which all afflictions have ceased. Created by rubbing his thumb across the surface instead of using a brush, the work reveals a repetitive yet disciplined formal experiment.

Rhee Kibong (b. 1957) was born in Seoul and studied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including *Where You Stand* (Kukje Gallery, Seoul, 2022) and *There Is No Place* (Tina Kim Gallery, New York, 2024) and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and elsewhere. He was active in the *Réalité Seoul* and *March in Seoul*, and '82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collectives, unbound by medium or subject in pursuit of painting's restored image, and at ARKO Art Center held the solo exhibition *Kibong Rhee: the Cloudium* in 2012.

In his early painting Rhee attended to the relation between objects and the subject who perceives them, probing the materiality and existence of the 'raw' encountered in daily life. He has since given form to the relations between objects, human and nature, matter and immateriality, working across painting, installation, and sculpture. In working with immaterial elements such as light, water, and fog, he builds spaces where memory and time, presence and absence, reality and perception intersect, sustaining his inquiry into the organic relations of nature, humanity, and environment.

The Raw—A Place With a White Towel (1986),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of the 5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first brought Rhee's name to wide notice. It grew from his interest in discovering a new meaning in objects easily overlooked, such as water, petals, meat, earth and stone. Working from the raw impression of fresh meat set against a white towel in a butcher shop, he splashed, dripped, and scraped paint to capture a state of rawness, using scarlet and dark gray with silver lacquer to evoke the scent of metal. The work reveals his enduring pursuit — through the dynamic vitality of objects and the strangeness they evoke — of the essence of things as it is projected onto the mind.

Lee Mansoo (b. 1961) was born in Gangneung, Gangwon-do, and studied Oriental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Kwanhoon Gallery in 1989 he has taken part in numer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most recently the solo show *Sanjo-Dawn* (Tong-In Gallery, Seoul, 2026). His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Figurative Arts of 1980s* (Kumho Art Museum, Seoul, 1989), *Young Korean Artists: New Directions in Korean Paint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90), and the *Seoul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1990, 1991).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the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88) and held his third solo exhibition there in 1991; as a member of Modern Ink Painting Association [Hyeondae Sumukhoe], a group for new directions in Korean painting, he took part in the '90 *Exploration of Korean Painting* (1990) and the '92 *Invitational Exhibition of Korean Art Groups* (1992).

Reflecting on humanity as alienated by material progress and in relation to nature, humankind, and life, Lee has experimentally extended the language of ink and color painting. In seeking a Korean identity within contemporary visual culture, he builds surfaces from ink, color, and clay pigment, exploring self-reflection and subjectivity through symbols such as the lotus and the human figure. His *Seeing, seeing* series won a Special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in 1983 and an honorable mention at the Dong-A Art Festival in 1982, and in 1989 the same series won the Grand Prize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8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Of the winning work *Seeing, seeing* (1989), Lee has said the title plays not on notions of season but on the act of seeing. By dividing and overlapping images across the surface, he sought through the lotus and the bluebird to express an ideal world, an inward gaze, and enlightenment.

Lee Shinja (b. 1930) was born in Uljin, Gyeongsangbuk-do, and studied applied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efore specializing in textiles at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Hongik University. She has participated in major exhibitions including *DNA: Dynamic & Alive Korean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2021), and *Lee ShinJa, Threadscap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23). At ARKO Art Center she has shown regularly in the *National Invitational Exhibition of Artisans* and the exhibitions of Hanwool Artist Association, and, active from the early years of the Korean Textile Art Biennale in the 1980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stablishing textile art in Korea.

From the 1950s Lee extended traditional Korean embroidery and dyeing into modern form, opening new possibilities for textile art, and her tapestries at the 1972 National Art Exhibition widened the horizon for Korean contemporary textiles. Working the materiality of thread and fabric into her formal, painterly compositions, she also taught as professor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Active in the Unmihoe and Hanwool Artist Association—serving as chair of the latter—she was equally engaged in group activities supporting the creative work of other textile artists and women artists.

Work, 80 (1980) dates from the period from the 1970s onward when Lee introduced tapestry to Korean contemporary textile production in earnest and expanded its formal possibilities. Its restrained black-and-white palette, geometric composition, and deliberate use of knots and hanging threads emphasize the structure and formal quality of the fiber itself, while a central circle and inverted triangle give the surface its balance. By presenting the weave technique and fiber material as an independent formal language, the work demonstrates how Korean textile art moved beyond craft into contemporary art in the 1970s and 80s.

Lee Hangsung (1919–1997), born in Iksan, Jeollabuk-do, was a printmaker, painter, and art publisher who did much to establish and advance modern printmaking in Korea. After liberation he founded Munhwa Gyoyuk Publishing and Sinmisulsa, contributing to the foundations of Korean art culture through art textbooks, specialized art books, and the art journal *Sinmisul*. In 1951, during the Korean War, he held Korea's first solo exhibition of color lithography, and in 1958 co-founded the Korea Prints Association with Yoo Kangyul, Chung Kyu, Choi Youngrim, and others, serving as its first president and organizing *Modern Printing Arts Exhibition for Decade* (Chang-il Dabang and Sinseong Dabang, Seoul, 1969), all key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printmaking. In 1972 he moved to France, working chiefly in Paris to develop an original abstract painting combining hanji, ink, oil paint, traditional East Asian pigments, and dyes; and held invitational solo exhibitions in Paris, Frankfurt, Milan, New York, and Tokyo. His early work centered on lithography in pursuit of an Eastern spirituality. But after settling in France he expanded into abstract painting using hanji.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the *Invitational Exhibition of Printmakers* (1974) and *Korean Art: Print Exhibition* (1981).

The *On the Seine* series, developed during his years in France from 1980 to 1981, draws on the hanji collage and mixed-media technique he had established in the 1970s. Taking its motif from the poetry of the French poet Katia Granoff (1895–1989), the series overlays French text and images of migratory birds and flowers upon abstract color fields, combining Eastern spirituality with the formal sensibility of Western abstraction.

Lim Chulsoon (b. 1954) was born in Seoul and studied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cluding *Korea's 100 Representative Artists Today* (Sejong Center, Seoul, 2009) and *Lim Chulsoon* (Hangaram Art Museum in Seoul Art Center, Seoul, 2019). Lim won the Grand Prize at the fifth Creative Arts Association Contest in 1980, a Special Prize at the sev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and the Grand Prize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of the eighth in 1989. Active in the Creative Arts Association, Present·Image, Réalité Seoul, and '82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collectives that broke from the established art world to seek a renewed figuration and imagery, he participated in their group exhibitions at ARKO Art Center, and took part in major shows at the space including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87, the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88), and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City, the Space of Life* (1993).

Turning everyday images that reflect the contemporary social landscape into symbolic, abstract imagery, Lim has moved freely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in creating original compositions beyond the dichotomy of realistic representation and abstraction, opening new possibilities for abstract painting in the 1980s.

Signal for a Modern (1989),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of the eigh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contrasts the anxiety and alienation surrounding modern life against a vast urban structure, expressed through symbolic imagery—graffiti, signs, numbers, stains—on a wall of grayish white. Combining silkscreen, gesso, and acrylic on burlap, its experimental surface of divided color fields and bleeding color was seen as usefully expanding the expressive range of painting at the time.

Chon Naesik (b. 1942) studied Korean painting at Seorabeol University of Arts and continued at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Lotte Museum of Art in 1984, he has held numerous show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Exhibition of Geumgang Art*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2004). He won the Grand Prize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first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2, and the Association Prize and Work Prize of the fifth Korean Christian Artists Association in 1983. Active with the Chang-rim Group and Si-Gong, he participated in their group exhibitions at ARKO Art Center and held the solo exhibition in 1987. He als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ntemporary Ink-painting Association Exhibition* (1983) and *Modern Asian Ink & Color Paintings Exhibition* (1986).

Pioneering an original form of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sansu] that joins the figurative and the non-figurative, Chon has simplified and transformed concrete natural forms into formal elements within his work. In the 1970s his *Traces of Soil* series probed the origins of humanity, nature, and history through the theme of earth; he went on to expand his practice into sculptural landscape painting [*johyeong sansu*] combining vigorous brushwork with omission and condensation.

Lingering Sentiments (1982),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first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akes soil and the stone walls of an old fortress as its motif, giving form to the traces of past figures and the marks of life and time. “Working with ink and light wash, I sought the harmony of ink, the changes of yin and yang, and the beauty of empty space,” Chon said at the time, “conveying, through sharp lines and angles and a condensed composition, the fundamental order of humanity and nature.”

Chon Byunghyun (b. 1957) was born in Paju, Gyeonggi-do. After winning the Grand Prize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of the first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and an Excellence Prize the following year, he moved to France and graduated from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ARKO Art Center in 1984 he has held numerous solo shows at home and abroad, participating in exhibitions at major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Seoul Museum of Art, the Whanki Museum, and Museum SAN.

His early work, grounded in realistic representation, explored the traces left by human beings and the realities of life. After his years in Paris he built relief-like surfaces from hanji made by cultivating the mulberry trees used to make the paper himself, combining these with ochre and traditional pigments, and forging a formal language of his own that spans East and West, tradition and modernity. *Traces-5* (1982),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of the first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gives form to human solitude and the traces of life through a shoreline strewn with a broken boat and discarded objects. “I combined an actual view of Songdo, Incheon, with my own memory,” Chon said on receiving the prize, “conveying, through a restrained surface centered on blue-brown tones and realistic depiction, the life and sentiment of human beings bound closely to reality.”

Cho Hwan (b. 1958) was born in Busan, studied painting at Sejong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nd continued in sculpture at the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 and the School of Visual Arts. 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2nd Husohoe Contest in 1985, the Grand Prize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fif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6, and the Dong-A Art Prize at the Dong-A Art Festival that same year.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the *2nd Husohoe Juried Exhibition* (1985), *Exhibition of Twelve Korean Painting Artists* (1986), *Invitational Exhibition of Award-Winning Artists from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1982-1986* (1987), *Exhibition of 33 Artists* (1987), and *Man, His Face and History-Recent Movement of the Korean Young Artists in Their Thirties* (1992).

Grounded in a subjective awareness of history, society, and the human, Cho's work from the mid-1980s centered on the lives and everyday reality of people through ink figures and crowd scenes, before he extended the expressive range of Korean painting through his relief-like series of iron-plate landscapes [cheolpan sansu]. *Idle Talk in a City* (1986),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fif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is an early ink figure painting made before the iron-plate series. In this work Cho has said that he wanted to tell the stories of ordinary people gathered at a subway station, and he continued to draw the everyday life of the city and its people as a central subject in the years that followed.

Choi Jongtae (b. 1932) was born in Daedeok, Chungcheongnam-do. He taught at an elementary school after graduating from Daejeon Normal School and studied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major domestic museums and galleries, including *Choi Jong Tae Retrospectiv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5) and *Face* (Gana Art Center, Seoul, 2026). He drew notice with the Minister of Education Award at the ninth National Art Exhibition (Gukjeon) in 1960, and received the Dongbaek Med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in 1998,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Republic of Korea Award in 2006, and the Eungwan Order of Cultural Merit in 2008.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Active within Mokwoohoe Fine Artist Association, Modern Space Club, and Seoul Sculptors Society, Choi also took part continually in their group exhibitions.

Drawing on the influence of his teacher, the sculptor Kim Chong Yung, Choi explored Western modern sculpture and Korean Buddhist sculpture to build a simplified formal language of the human body, consistently focusing on women, faces, praying figures, and images of the Virgin Mary. He developed an original, flattened idiom that reduced the human form to spare, simplified planes, earning his standing as a master of Korean modern sculpture.

Taking the human face as his motif, Choi gave form not only to its plastic beauty but to inner spiritual beauty and compassion for humanity. *Face* (1982) exemplifies this defining series. His head sculptures of the 1980s in particular are marked by a flattened plane thinning the face, a slender neck, and a broad face recalling the shape of an axe, reflecting his shift from wood in the 1970s to bronze in the 1980s.

Hong Soonjoo (b. 1954) was born in Seoul and studied painting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and Korean paint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he has participated in major exhibitions including *Korean Contemporary Ink Wash Paint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1981) and the *Seoul Ar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1992–1998), and won a Special Prize with the Minister Award at the 28th National Art Exhibition in 1979 and the Grand Prize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2nd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83. She was involved with Iwonhoe, a group exploring new directions in Korean painting, and Husohoe, a group of Korean painters focused on color painting. She participated in *Iwon Exhibition, Exhibition of 33 Artists* (1987), and her solo exhibition *Hong Soonjoo Solo Exhibition* (1992) at ARKO Art Center.

In the 1980s Hong presented figurative work on subjects such as portraits, night scenes, and patchwork, before turning from the late 1980s to abstraction built from ink and dabs of white pigment. From the 1990s she continued her structural experiments with the canvas through color fields and shaped canvases. *Afternoon* (1983),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2nd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akes as its subject the elderly, marginalized in modern society, who express a quiet yet resolute will to live in their faces. Hong has said the work grew from her concern for the plight of the elderly, and sought to capture in their expressions a calm, undiminished will to live.

